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2일 09시 35분

색소폰 앙상블!

2015.09.02 조회수 139 등록자 문지선

색소폰...쉽게 접하지 못하는 악기..그리고 연주하기 힘든 악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

문화가 있는날 공연으로 색소폰 연주를 만날 수 있었다

색소폰의 소리에 빠져들더라는...

소프라노 색소폰, 테너 색소폰, 알토 색소폰, 바리톤 색소폰..

연주자의 배려 덕분에 음색에 따라 색소폰의 종류도 나뉘고 악기마다의 음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연주해주었기에 더욱 유익했다

아이들의 질문에도 성의껏 답해주었던 청년들에게 더욱 감사하다..

언제부터 배웠냐..왜 많은 악기중에 색소폰이었냐...ㅎㅎ

아이를 다운 질문이었지만 공감해주고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었던 느낌이랄까

압튼..

매달 문화가 있는 날이 기다려진다 ^^

형들을 접하기 어려운 올 아들에 눈에 비친 연주가들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될까?

ㅎㅎ

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한 아이들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...

글쓰기

목록

이전글
jk 김동욱 콘서트를 보고~~

다음글
하우스콘서트색소폰공연을보고

MokPo - Si
Web Contents

